

중소·중견기업의 ESG 현황 분석

오 덕 교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

1. 서론

일반적으로 기업을 규모별로 구분할 때,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을 해왔으나, 2011년 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가교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육성방안을 내놓아 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 고에서는 유가증권시장에 상되어 있는 중견기업의 지배구조, 사회, 환경(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중견기업의 현재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중견기업의 정의

개정된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로 중견기업을 분류하고 있다.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닐 것

중소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내리고 있으며, 먼저 아래

〈표 1〉의 중소기업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다음으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에 대해 일정조건을 갖춘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일정기준¹⁸⁾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해당업종	규모기준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18)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의 기준

- 가. 상시 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 다.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3.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ESG 점수

위의 <표 1>에서 보면 중소기업의 기준 중의 하나인 상시근로자 수는 업종별로 다르고, 또한 재무적 기준은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업종별로 달리 사용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상기 <표 1>의 기준으로 상장 중견기업을 추출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2012년도 유가증권시장의 평가대상기업은 총 710사였으며, 이 중에서 2011년 12월 31일 현재 중소기업은 117사이고,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331사로 나타났다. 이 장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수행한 2012년 ESG평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1 ESG 점수

먼저 지배구조, 사회, 환경의 총점에 대해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 외 기업에 대해 비교해 보았다. 그 외 기업에는 대기업을 포함하여 지주회사, 금융업종(금융지주업, 보험업, 증권업 등)에 속한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ESG 각 분야에 대한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중소기업이 전 분야에서 가장 낮고, 다음으로 중견기업, 그 외 기업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 기업군별 ESG 점수의 비교

기업군	기업 수	지배구조	사회	환경
중소기업	117	89.6	62.8	87.4
중견기업	331	99.2	76.9	96.3
그 외 기업	262	122.7	121.0	121.9
전체	710	106.3	90.8	104.3

* 각 분야별 점수는 300점 만점임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ESG 각 분야의 평균 점수는 유가증권시장의 평균점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두 기업군은 사회 책임경영분야에서 아주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책임경영이 기업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작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배구조의 경우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적 제약이 존재하고 환경경영의 경우에도

사업영위를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고 수행해야 하는 환경활동에 대한 법적 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활동을 하고 있으나, 사회책임경영의 경우, 근로자 영역을 제외하면 법적 제역이 다소 약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많은 신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세부적으로 ESG 각 분야의 대항목 영역에 대해 비교해 보도록 하자.

3.2 지배구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ESG평가의 지배구조 분야는 크게 5 대항목 각각 주주권리보호, 이사회, 공시, 감사기구, 배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교 결과는 아래 <표 3>에 나타나 있다. 주주권리 보호 영역에서는 세 기업군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 경영과실 배분에서는 중견기업이 그 외 기업들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영역들, 즉 이사회, 공시, 감사기구 영역들에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순으로 나타나, 규모가 작을수록, 이사회가 잘 운영되지 않고 공시 활동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감사기구의 확충 및 활동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이사회 운영에서는 대기업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욱이 기업들의 비윤리적 행동에 따른 감점도 살펴보면, 중소기업군에서는 평균 2.7점의 감점이 이루어졌고, 중견기업군에서는 0.8점이, 그 외 기업들은 0.7점으로 조사되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의 분식회계, 횡령 등의 비윤리적 행동이 상대적으로 빈번하였기 때문이다.

<표 3> 기업군별 지배구조 대항목 점수 비교

항목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전체
주주권리보호	61.6	60.4	60.1	60.5
이사회	12.3	14	22.6	16.9
공시	17.7	21.3	33	25
감사기구	34.8	43.2	58.8	47.6
경영과실배분	19	26	25	25
감점	2.7	0.8	0.7	1.1
계	29.9	33.1	40.9	35.4

* 대항목의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임

3.3 사회책임경영

사회책임경영은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 이렇게 4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모든 대항목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점수가 낮았고,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순으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점 또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기업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내 부당 행위에 대한 과징금 또는 벌금 부과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항목들의 기업규모에 따른 추이를 보면 중소기업은 점수가 아주 낮고,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조금 높은 반면에 대기업을 포함하고 있는 그 외 기업군에서는 점수가 대폭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책임경영은 기업규모가 커야만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력사 및 경쟁사와 지역사회 영역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아주 열악할 것으로 나타나 이 두 영역에 대해 두 기업군에 속한 기업들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기업군별 사회책임경영 대항목 점수 비교

항목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전체
근로자	27.2	31.5	42.9	35.2
협력사 및 경쟁사	10.5	16.6	43.4	25.5
소비자	54.5	56.7	70.8	61.5
지역사회	11.7	17.0	32.3	21.7
감점	0.8	1.0	2.8	1.63
계	20.9	25.6	40.3	30.3

* 대항목의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임

3.4 환경경영

환경경영은 환경전략, 환경조직, 환경경영, 환경성과, 이해관계자 대응의 5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환경경영에 있어서도 지배구조와 사회책임경영에서 처럼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순으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경영 분야에서는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소기업군과 중견기업군에 속하는 기업들이 제조업에 속해 있고, 산업 속성 상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법적 요건은 충족한 후 사업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환경경영 영역의 점수가 세 기업군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음). 그러나 이해관계자 대응 영역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아주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들의 수익이 높지 않은 현실 속에서 외부 이니셔티브 활동 참여, 지속가능 보고서의 발간 등의 활동을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전 영역에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들의 평균이 유가증권시장의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이 기업군들에 속한 기업들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기업군별 환경경영 대항목 점수 비교

항목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전체
환경전략	33.4	36.8	50.3	41.2
환경조직	32.6	36.6	44.6	38.9
환경경영	39.1	42.6	46.4	43.5
환경성과	16	16.8	23.1	18.9
이해관계자 대응	4.0	9.2	32.8	17.2
감점	0	0.5	0.7	0.5
계	29.1	32.1	40.6	34.8

* 대항목의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임

4. 중소·중견기업의 ESG 실태

지금까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결과에 대해 논하였는데, 이제는 ESG 실태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배구조,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에서 중요한 지표들을 각 기업군별로 살펴봄으로써 ESG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4.1 지배구조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를 11개를 선정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표 6〉 참조). 기업지배구조현장과 임직원 윤리규정의

경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중 도입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해 지배구조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음을 판단할 수 있다. 주총 소집 통지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각각 평균 2.95주, 2.97주 전에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 그 외 기업군의 2.89주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6〉 기업군별 지배구조 실태 비교

지배구조 KPI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외	전체
기업지배구조현장 공시 기업 수	0	2	20	22
임직원 윤리규정 공시 기업 수	11	79	155	245
집중투표제 도입 기업 수	1	12	28	41
전자 혹은 서면 투표제 도입 기업 수	11	22	34	67
주총 소집 통지일 (주총일로부터 몇 주 前)	2.95	2.97	2.89	2.94
감사위원회 도입 기업 수	6	61	169	236
평균 이사회 규모 (단위:명)	4.69	5.52	6.76	5.84
평균 사외이사 수 (단위:명)	1.44	1.82	3.39	2.34
평균사외이사 비율	31%	33%	48%	38%
평균 자율공시 건수	1.34	1.35	2.15	1.65
평균 정정공시 건수	4.1	2.66	6.11	4.17

감사위원회의 경우 중소기업 중 6사가 도입하였고, 중견기업 중에서는 61사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법에서 자산 총액 기준 2조원 이상인 기업에게 강제하고 있고 2조원 이하의 기업은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사회 규모와 사외이사의 수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평균 이사회 규모는 4.69명으로, 중견기업은 5.52명, 그 외 기업은 6.76명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증가하며, 사외이사 수는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1.44명, 중견기업의 경우 1.82명으로 그 외 기업군의 평균 3.39명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법적으로 상장사는 기본적으로 이사회의 25%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어야 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데

반해, 그 외 기업군은 보다 더 높은 법적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그 외 기업군의 평균 사외이사 비율은 48%로 50%에 육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31%, 33%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자율공시와 정정공시의 건수를 비교해 보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1.34, 1.35건으로 그 외 기업군의 2.15건보다 낮아 자율공시에 적극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정공시는 중소기업은 4.1건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중견기업은 2.66건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4.2 사회책임경영

사회책임경영에 대해서는 12개 KPI를 정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7>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 7> 기업군별 사회책임경영 실태 비교

사회책임경영 KPI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외	전체
공정거래방침 수립	16	116	192	324
공정거래실천프로그램 운영	4	47	131	182
부패방지 내부원칙 수립	11	74	169	254
협력사 동반성장 정책 수립	0	11	83	94
소비자에 대한 공정거래원칙	7	54	119	180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유출시 보상에 관한 정책 수립	20	109	154	283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정책 수립	25	157	221	403
사회공헌활동 전담조직	0	4	51	55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	1.07%	0.75%	2.63%	1.50%
인당 교육훈련비 (단위 : 천원)	437	645	717	638
매출액대비 사회공헌비용	0.12%	0.08%	0.19%	0.13%
평균 근속년수 (단위 : 년)	8.7	8.6	8.2	8.5

먼저 공정거래 방침 및 공정거래 실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아주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두 기업군은 시장 내에서 공정거래를 주도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 대기업을 따라가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패방지내부원칙의 수립도 대기업보다는 수립한 기업의 수나 비율 측면에서 낮으며, 협력사에 대한 동반성장 정책의 수립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아주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두 기업군은 동반성장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가 아니라 대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의 객체로서 혜택을 받는 기업군이기 때문이다.

사회공헌활동 전담조직의 유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상장기업 전체 중 55사만이 사회공헌활동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사회공헌활동 전담조직을 갖춘 기업이 없어 중소기업에게는 사회공헌활동보다는 매출 및 수익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비용은 금액상으로는 기업규모에 따라 증가하나 비율로 살펴보면 중견기업이 세 기업군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중견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공헌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매출액이 증가한 만큼 사회공헌 비용은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거나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보다 높고, 이 두 기업군은 그 외 기업군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중견기업의 복리후생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의미하며 중소기업보다 중견기업들이 직원들의 복리 후생에 덜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인당 교육훈련비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의 평균보다 낮고 중견기업은 평균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들이 열악한 수익구조 상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 직원들의 교육훈련에 적극적인 지원을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 근속년수의 경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의 평균을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직원들이 오래 근속 중임을 알 수 있다.

4.3 환경경영

환경경영에 대해서는 11개 KPI를 정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8>에 정리하였다.

환경전략의 유무를 살펴보면, 많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환경전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경영 전담조직도 잘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직의 규모가 작아 전담조직을 갖추기 보다는 타 업무와 병행하여 환경경영을 맡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환경경영에 대해 이사회 내 검토 여부는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전반적으로 열악한 실정으로 환경경영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단기 그리고 중장기 환경 목표는 대체로 많은 기업들이 세우고 그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 전략은 존재하지 않고 중장기 환경목표가 있다는 것은 비체계적인 환경경영의 추진을 초래하여 추세에 따라만 가는 환경경영이 될 소지가 있다.

〈표 8〉 기업군별 환경경영 실태 비교

환경경영 KPI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외	전체
환경전략 유무	3	12	101	116
환경경영 전담조직 유무	14	80	118	212
이사회 내 검토 유무	2	10	28	40
단기 환경목표 유무	66	186	159	411
중장기 환경목표 유무	66	185	153	404
녹색구매 시스템 유무	0	7	51	58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 활동	87	279	227	593
온실가스 저감활동	9	51	111	171
환경회계정보관리	2	27	85	114
환경정보 공시	0	7	64	71
ISO 14001 인증	56	151	126	334

녹색구매시스템의 도입 또한 전 상장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아주 열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구매규모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낮은 파급효과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활동은 상장기업 모두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하청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관계로 수요기업의 정책에 따라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저감 활동 측면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활동이 매출 증대 및 비용구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 또한 이 활동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도 존재하기 때문에 판단된다.

환경정보의 공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열악하다. 현실적으로 환경정보의 공시가 주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시장가치 상승이나 고객들의 선호도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단된다. 정책적으로 기업들의 환경정보 공시가 보다 용이하게 되도록 해야 하고, 또한 일반인이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 선호도 및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ISO14001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수로는 중견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율로 보면 세 기업군 모두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ISO 14001 인증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지금까지 유가증권시장 내 상장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ESG 점수와 실태를 비교·분석해 보았다. ESG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중견기업은 점수와 실태에서도 가교역할을 하며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중견기업이 대체로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면을 갖추고 있으나, 몇몇 측면 또는 사항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보다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바이다.

ESG에 대한 성과 및 시스템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또는 기업의 수익이 클수록, 또는 기업의 수익성이 좋을수록 보다 더 잘 갖추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그리고 대기업으로 기업이 발전하면서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수익이 늘어나며, 수익성이 좋아진다면 ESG 관련 시스템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이윤 추구를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업이 성장하였다면 ESG에 투자하는 게 기업의 수익성에 도움을 주고 수익의 증대에 가속을 해줄 수 있는 만큼 ESG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열악한 ESG 성과 및 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기업의 수익과 ESG를 동시에 추구한다면 보다 나은 기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